

- [교회 표어] · 은혜충만 · 진리충만
- [교회 3대 목표] ·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 [성도생활의 목표] ·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2월 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인왕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정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소속하여 말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류지성 -

저희 부부는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의 교인이 된지 올해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상풍'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증상이 심하여 그 당시 치료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했지만 어린 제 몸에서 더이상 주사바늘을 찌는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를 더 버티기가 힘든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할머니께서 밤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기적적으로 주사 놓을 곳을 발견하여 그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저는 곧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독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할머니의 영향으로 부모님을 포함한 저희 가족이 차례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는 성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다양하게 느끼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은혜와진리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함께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2015년에 직장 문제로 대전에 내려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닐 교회를 찾다가 전에 다녔던 교회와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담임목사님의 설교가 새롭고 교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수록 강단에서 섰던 메시지에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가 도외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이 종교다원주의와 관련된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속한 교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서는 더이상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은혜와진리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에도 교회당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기로 결심하고 교역자님에게 말씀하셨더니 저희가 마음을 바꾸도록 동시에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였기에 2019년 12월에 대전성전으로 가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므로 그분의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러머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하여 경청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때는 마치 눈앞에 영성으로 생생하게 펼쳐지듯 흥미진진한 성경이야기로, 또 어떤 때는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더 깊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또한 그동안 알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고 신령한 깨달음을 얻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말씀을 성경말씀으로 유기적으로 풀어 교훈해 주시므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2021년 초에 동탄신도시로 이사를 와서 이곳 동탄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전파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 일터를 옮기도록 섬리해 주신 하나님
 저는 2022년 상반기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7-8년 앞두고 일찍 퇴직하여 지금은 한 기업체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3년에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조금은 늦은 나이에 연구직 공무원(연구사, 6급 상당)으로 한 정부부처의 소관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으로는 드물게 그곳에서 10년 이상 한 분야의 일을 하면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며 명성도 얻었지만, 그러나 조직내에서 승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심신이 몹시 지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서 연수를 받는 좋은 기회를 예비해 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몸과 마음의 짐을 얻고 장래를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매주 현지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 해당 정부부처 내에 새로 만들어진 다른 기관에서 일하며 시험을 통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였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 합격하고 5급 상당의 연구관으로 승진하여 근무처를 옮겼습니다.

승진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지만 새로운 기관에서 맡은 일이 그동안 제가 해오던 전문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게 해주시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3년이 지나서 4급 상당의 과장 직분으로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5급에서 4급 과장으로 3년 만에 승진한다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승진 후보자가 되자 저보다 먼저 그 기관에서 일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가 승진을 하고 한 부서를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일을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이 대전에서 청주 오송으로 이전되면서, 저는 대전에서 화성 동탄으로 거처를 옮기고 버스과 고속철도 노선인 SRT를 이용하거나 때로는 편도 90km의 길을 직접 자동차로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가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지만 아예 업무에 열정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매일 힘든 출퇴근이 무리가 되었는지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며 머리가 어지러워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이상은 멀리 출퇴근을 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일부러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는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어떤 회사에서 '함께 일해 볼 수 있는 장소는...?'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1-2위를 다투는 곳이었고 제가 주로 맡았던 전문분야와도 맞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사급 임원의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정된 공무원 신분을, 그것도 비교적 높은 직위를 내려놓고 일찍 퇴직하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새로운 곳에서 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대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새 일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가 처음 소속한 기관에서 그대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회사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하기 전 일정기간에 어떤 정해진 업무에서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관련된 민간기업으로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담담했던 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의 기관으로 먼저 소속을 옮기게 해주셔서 이 기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처럼 재취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였음을 고백하며 절로 찬송하게 됩니다.

3. 꿈을 통해 더 깊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어느 날, 저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얀 겹이 날고 있었고 그 옆에 얼굴은 찬란한 빛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새하얀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어린 저였지만 그때 저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어떤 남자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친척 중에 특히 슬로 몸이 많이 상하여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한 그 꿈을 가끔 생각하면서 나중에 주님을 볼 때 주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봄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잠시 깼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그동안 살면서 무척 힘들었던 일, 너무 억울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나요?'라고 마음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당혹스런 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힘들고 억울했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사라지고 주님의 크신 은혜만을 느끼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난 해 추석 연휴에는 이런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꿈속에서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네 자아를 깨뜨리고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제 마음속 예수님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대신 채워져 있는지, 저는 저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10여 년 전 연휴에 겨울이 끝나갈 무렵, 저는 직장동료들과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을 한 걸음씩 오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호흡이 거칠어지더니 혹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봐 어느새 모두가 땅만 바라보며 울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문득 눈을 들어 위로 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시선이 머문 산정상 부근이 아직 녹지 않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황홀할 정도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 내가 지금 저 아름다고 영화로운 천국보다 그저 하루하루 힘든 세상만 바라보며 이렇게 거친 호흡으로 살고 있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념은 신앙생활에 후회해 없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신실하고 담대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항상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식 “카카오톡채널”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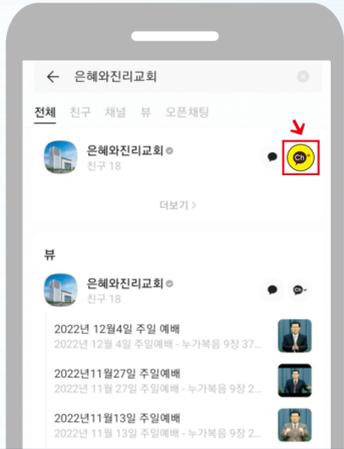
-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은혜와진리교회” 를 검색하여 추가하시면 주일 예배 설교와 교회 주요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카톡 친구들에게 간편하게 설교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 전도에 활용 가능합니다.



1. 카카오톡 친구 찾기 돋보기를 누른 후 “은혜와진리교회” 검색



2. 검색하여 나온 은혜와진리교회 우측의 Ch+ 버튼을 눌러 주시면 하면 됩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인왕로 193 T.031-443-3731 ~ 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정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파천 : 파천시 별양상기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굴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기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내침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한촌길27번길 9-8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병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호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동로12번길39-11 (광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산동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행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묵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42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208장 (새찬송가 289장)

“누가복음 10장 38절~42절 강해 설교”

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도 그냥 두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르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르다의 심정과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르다야 정말 수고가 많다. 자, 마리아야 나가서 네 언니를 도와주려 무나.”라고 하실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에게 투정 섞인 불만을 토로한 연고로 예수님이 이를 판단하는 말씀을 하신 이 사건에는 귀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고 행하라는 교훈입니다.

마르다는 음식 장만하는 편을 택하였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선택과 행함이 옳으나, 그러나 하는 차원을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 시던 중에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오리 남짓 되는 곳에 위치한 베다니 마을입니다. 갑갑한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이 마을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요 11:5)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마을로 들어서자 마르다가 그들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앉으시고 곧장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이 랍비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모두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과 관습을 무너뜨렸습니다.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인해 몸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게만 음식 대접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함께 온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하는 일을 마르다가 혼자 감당하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불만 섞인 호소를 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

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롬 10:23)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교훈하는 사건이 구약성경 사무엘서에서 언약궤와 관련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시나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히 지시하여 만들게 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성막에 두었으나 후에는 솔로몬 성전에 두었습니다.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의 양 끝에는 두 그룹이 속죄소를 들고 있습니다. 이 천사 모양의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호와와는 “속죄소 위 곧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만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립 사이에 좌정하셨다”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와 언약궤를 탈취하였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전리품으로 신상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 우리의 위대한 신! 다곤이여, 당신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겼나이다. 이제 그들의 신을 잡아왔으니 당신 앞에 전리품으로 드립시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다곤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덤벼들어 넘어뜨릴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저처럼 있으니 모두 덤벼들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고정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또 엎드려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모두 머리카락이 주눅했습니다. 소름 돋는 일입니다. 이 무슨 정조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때로부터 독종재앙이 아스돗 주민에게 임했습니다. 몸에 독종이 생기는데 그 아픔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대었습니다.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더니 하드 주민들이 독종으로 고통하였습니다.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독종으로 인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그 곳 주민들이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니라며 아우성쳤습니다. 그리하여 방백들이 모여 의논하기를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블레셋 방백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경인 벧세메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쫓 나는 소 들을 끌어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면 독종재앙이 여호와와 내린 징벌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내린 재앙으로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소이고 또 지금 쫓 나오는 어미 소인데 송아지를 떼어놓고 멀리 갈 리가 만무합니다. 만약 소가 벧세메스로 간다면, 재앙이 언약궤를 그들이 탈취해서 된 연고라고 결론짓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는 묵묵히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갔습니다. 벧세메스 사람들이 들에서 보니 수레가 오는데 언약궤가 실렸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벧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다수가 죽었습니다.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어긴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빼앗겼던 언약궤 돌아오니 반가운 나머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겨를 없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언약궤는 기뻐하여아름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윗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작정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야호가 그 새 수레의 앞뒤에 서서 모셨습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웃사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면 언약궤는 체를 꺾어서 레위 지파 사람이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는 법이 있습니다. 웃사가 나쁜 마음으로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마구 뛰니 수레가 좌우로 뒤흔들립니다. 그 위에 있는 언약궤가 덜컹하고 떨어지려고 합니다. 아카시가 나무로 만든 궤짝입니다. 떨어지면 부서질 것입니다. 웃사가 몸을 날려서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 죽이셨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나서서 그 역시 잘못입니다. 우상은 자백하면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야 하지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지,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언약궤에 손 대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섬김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본문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르다는 자기중심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게 되었으며 결국 원망 불평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 목적이 식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어야 좋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직전에 베다니 마을에 가셨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 옛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날도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지난번 경험을 고려한다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예수님을 모신 목적이 만찬이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음식 준비에 힘쓴 것이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원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에 일치하여 처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매사에 주님의 의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므로 ‘이 좋은 편’을 선택한 자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게 일하고 기쁨으로 행하는 편을 택하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르다가 음식 장만하는 라고 애쓰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도 그냥 두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때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연거푸 부르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하여 이

름을 부르시는 경우가 몇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①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밭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 하였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야호가 그 새 수레의 앞뒤에 서서 모셨습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웃사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면 언약궤는 체를 꺾어서 레위 지파 사람이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는 법이 있습니다. 웃사가 나쁜 마음으로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마구 뛰니 수레가 좌우로 뒤흔들립니다. 그 위에 있는 언약궤가 덜컹하고 떨어지려고 합니다. 아카시가 나무로 만든 궤짝입니다. 떨어지면 부서질 것입니다. 웃사가 몸을 날려서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 죽이셨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나서서 그 역시 잘못입니다. 우상은 자백하면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야 하지만,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지,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언약궤에 손 대지 못하도록 법을 정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섬김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② 예루살렘에서 기독교회를 무섭게 잔해하고 핍박한 청년 사울이 외국 성 다메섹으로 피신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오려고 작정했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홀연히 하늘로서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그가 땅에 엎드려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질문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비록 사울은 기독교회를 말살하려고 하였으나 세속적 영달을 위하여야 하진한 감정으로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인 중에도 골수분자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파하는 자들을 요격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가담하였으며 예루살렘 각 집을 수색하여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옥에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한이 차지 않아서 외국 성으로 피신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도 달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울에 대하여 연민하는 마음으로 “사울아, 사울아”하고 연거푸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신 것도 마르다가 음식을 잘 대접하려고 애쓰며 수고하는 모습에 대해 동정적이고 애정 어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라는 말씀에서도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훈계하신 것입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보시고도 그냥 두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마르다의 요청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몹시 분주한 형편인데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입니다. 둘째, 이러한 형편을 아시면서도 마리아를 그냥 두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셋째,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에 대한 과시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조금만 사려 깊었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먼저 경청(傾聽)한 후에 음식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음식을 준비해 놓고 얼른 들어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불평불만을 토로할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된 중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 10:10,11)라고 경계(警戒)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면하게 되었으니 무한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밤낮으로 노동을 해도 품삯도 주지 않고 매만 두들겨 패는 상태에서 지냈 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산파가 그 아이를 빼앗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왕명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쫓과 쫓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둘째,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를 주셨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지도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가 그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셋째, 구름 가운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태양빛이 작열하고 밤에는 기운이 금강하하는데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을 덮어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야생 동물들이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낱알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감사할 일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들은 불만 불평거리를 골라내어서 토로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 한결갈고 음식이 단조롭다고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것이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민 11:4~6)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구할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매일마다 진 사면에 내리는 만나는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다. 오늘도 만나가 보이니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마땅합니다. 잘 대하여 주면 도가 넘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드디어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 미련한 인간의 소행입니다. 당연히 요구할 권리라도 있는 줄도 착각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속담에 “물에 빠진 자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어 놓아라 한다.” 하였습니다. 만나를 두고 불평하기 직전에 그들이 약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여 징벌의 불이 내려 진 끝을 사르게 한 일 있습니다. 이 때 모세가 기도하므로 불이 꺼졌습니다. 진 끝에 불이 붙는 경험을 했으면 대조성해야 할 것인데 여전히 그 못된 버릇을 내버리지 않고 이번에는 만나를 두고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원망 불평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지 못하고 광야에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인데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바른 자세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기록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예배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선택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데 있습니다. 예배할 때, 주의 일을 행할 때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하는 감격을 가지고 행하여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불평하기보다 적은 일을 하면서 감사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상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배웠 습니다. ① 주님을 섬기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